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  
**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건**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여는 발언>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각계 릴레이 발언>

- 문화예술계 : 이두찬 (문화연대)
- 시민사회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종교계 : 전남병 목사(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 법조계 : 조영선 변호사(민변 회장)
- 교수/학술 : 선재원 상임공동의장(민교협)
- 노동안전보건단체 : 이나래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인권단체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 여성계 : 김용남 정책국장(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학생 : 김설 위원장(청년유니온)
- 비정규직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노동계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현장발언>

- 한상각 지부장(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 최현환 지회장(금속노조 한국오티칼하이테크지회)

<퍼포먼스>

## ○ 각계 발언문

### 문화예술계 : 이두찬 (문화연대)

노조법 2·3조 개정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화려한 무대와 빛나는 스크린, 포털사이트 유명 웹툰과 유튜브 속 영상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극장 스태프, 단역 배우, 웹툰 작가, 예술 강사, 뮤지션, 댄서, 싱어송라이터, 시각 디자이너, 작가, 편집자 등등.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사용자를 찾기 어렵고, 명백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작품들은 갈채를 받지만, 우리의 존재는 잘 들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노동 가치는 제대로 존중받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OTT, 플랫폼, 제작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도 사용자로 책임을 지고 문화예술노동자와 교섭에 응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을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지한다. 노조법 개정은 바로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노조법을 개정하라.

### 시민사회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이 최근에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업 운운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특하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현행 노조법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철도노조 총 파업을 계기로 늘 악용되어왔던 이 조항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철도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철도노조의 투쟁과 노동시민사회의 연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요금 인상과 안전 위협 등 철도민영화의 폐해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고스란히 뒤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성을 확대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어버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 문제를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철도민영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민영화, 규제완화 등에 노동조합은 앞장서 투쟁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뿐만 아니라 민영화를 막아내는 법안입니다. 무

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는 법안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교계 : 전남병 목사(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18일, 기독교계 30여 개의 단체가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노조법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저희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노동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손을 일하는 손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일하는 손을 가진 모든 노동자는 거룩합니다. 거룩하기에 노동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싸울 것입니다.

신앙인은 끈질깁니다. 지금도 매주 한 번씩은 2,000년 전 죽은 한 청년을 기억하는 일을 합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노동혐오, 노조혐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동 자매형제들과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법조계 : 조영선 변호사(민변 회장)**

강산이 일곱 번 바뀔 70년 동안 노동자. 사용자 개념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물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 등 다양한 간접고용 등 다양한 노사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의 시계는 1953년에 멈춘 채 흙먼지와 노동자들의 피바람 만 불러왔습니다. 더욱이 2018 학습지 교사, 2022년 현대기아차 사내사청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노조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 증거라 할 것입니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손배, 가압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졌습니까. 2003.1.9. 배달호 열사의 분신자결 이후 20년,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대우해양조선의 손해배상 청구액470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교수/학술 : 선재원 상임공동의장(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는 개정 노조법을 즉시 통과시켜라!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인 노동자의 생명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협치 운운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켜온 20년 간의 개정논의를 외면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노동자가 존재해야 현 경제체제가 운영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국회 통과를 미룬다면, 전국의 교수연구자와 함께 민교협은 국민 대의에 역행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간주하여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 **노동안전보건단체 : 이나래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조법 2, 3조 개정 없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없습니다. 한해 2천 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불안정한 고용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진짜사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원청에 책임을 묻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십시오!

### **인권단체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노동3권 보장이라는 목적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 온 노조법 개정을 20년 넘게 요구해왔습니다.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서로를 지키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 바로 국회가, 제도정치가 직무유기해온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고 뒤쳐진 법제도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권리와 존엄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개정국면을 열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여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노예적 삶을 이어나갈지 우리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되면 좋고 안되면 실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운명이 걸린 문제"라 했던 택

배노동자의 말을 기억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유예되는 시간을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20여년 시간의 무게로 촉구합니다. 9월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 처리하십시오.

#### **여성계 : 김용남 정책국장(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과 이중의 억압 아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형태는 자본이 언제나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더 적은 책임을 지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돼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자를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생명과 안전은 방기해 왔습니다. 그 착취의 최전선에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차별과 가사·돌봄노동의 전가로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에서 밀려났고 경력이 단절됐으며 가장 먼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힘인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일하는 모두가 노조를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여성노동자에게도 절박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 **청년·학생 : 김설 위원장(청년유니온)**

청년이 요구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에 국회는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우리의 권리를 위해 당당하게 파업할 권리! 플랫폼 독점기업에게 사용자로서 자기 책임을 갖게하고,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 것에 손해배상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선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거부의 저항으로 맞설 것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노란봉투법 지금당장! 국회는 응답하라!

#### **비정규직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가 정부로부터 합법필증을 교부받은 지 7년이 지났습니다.

7년동안 택배노조는 교섭다운 교섭한번 못하고 ‘진짜사장’을 만나기 위한 투쟁의 나날이었습니다. 수 차례의 총파업과 본사농성 등 정말 치열하게 투쟁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건 수백명의 해고와 구속,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소송도 했습니다. 노조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항소하면 그뿐 언제 나올지 알 수조차 없는 판결날을 기다리며 또다시 몇 년을 보내야 합니다.

교섭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교섭할 수 없는 동안 2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숨져갔고 현장은 비바람이 불면 택배와 노동자가 비에 젖고 비에 젖은 택배를 배달하면 택배노동자가 변상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1일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당을 향해 투쟁의 불화살을 쏘아 붙겠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순간 택배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노조법운동본부와 함께 끝까지 가장 치열하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노동계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IMF가 몰고 온 재앙이 임금노동자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우리 사회 수많은 노동자들은 권리 밖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이 만연된 사회에서 지금 노조한 걸리, 간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20년째 요구하고 있고 국회는 20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또다시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수많은 노동자들은 앞으로 20년 후에도 권리 밖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20년간 노동자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민생법안을 2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0년 후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주노조를 하는 이유이고, 민주노총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함께 쟁취해냅시다. 투쟁

## ○ 현장 발언문

### 최현환 지회장(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최현환입니다.

손배가압류가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니토자본은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버리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13명의 노동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을 지킨 게 생존권까지 위협당할 일입니까? 사는 전셋집과 아파트까지 가압류해 가족까지 지옥같은 고통으로 내몰려야 될 일입니까?

아직 공장철거계획이 승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본은 철거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장을 보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승인되지도 않은 철거계획을 빙자해 가압류까지 걸었습니다.

5명의 조합원은 임대차보증금 각 4천만원씩 2억이 가압류됐고

또 다른 5명의 조합원은 부동산에 각 4천만원씩 2억이 가압류 됐습니다.

법이 이렇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 수 십년간 자본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손배가압류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두산중공업에서, 한진중공업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술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법과 재판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저 악법을 없앨 수 있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국회는 지난 20년간 노동현장에서 손배가압류로 숨겨간 노동자들의 절망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공모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들어야 합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니토펜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투기업입니다. 니토는 18년간 한국옵티칼에서 총매출액의 82%에 해당하는 6조 3천억을 챙기고 공장을 폐업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한 공장에서 6조3천억이 넘는 돈을

챙겨 하루아침에 도망치는 니토자본의 재산부터 압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온갖 특혜만 누리다 단물만 빼먹고 폐업하는 외투자본의 먹튀행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노동자의 요구에 거부권을 꺼내든다면 그 정권은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손배가압류 때문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니토자본에 전합니다. 악의적인 손배가압류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당신들의 먹튀행각은 반사회적이며, 반인권적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일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 **한상각 지부장(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2002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국회와 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주장은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끌기이자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시장 만능의 기조하에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구조조정 임금과 노동시간 유연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무력화 등 노동개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노동자, 힘없는 노동자를 공격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을 등에 업은 부패한 관료들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배배상액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학습지교사, 화물차 기사, 보험설계사, 간병인, 킥서비스, 방송작가,

대리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자이며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하청노동자도 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호받으려면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손배가압류는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해 가정과 개인의 인생이 파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노동권 보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노동자의 입을 막는 손배, 가압류가 남발하는 현실은 공정도 법치도 아닙니다.

노조법 2·3조개정안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중재안은 개정안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본회의 처리를 요구합니다. 노조법 2·3조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며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손배폭탄 방지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 ○ 기자회견 사진











